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 공감에서 고민까지”

첫 번째

숨su:m

글을 시작하며...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매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다. 언니들의 요구를 가지고 논의하고 언니들 생각을 직접 듣고, 고민 끝에 우리의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쓰면서도 고민하고, 글을 고치면서 몇 번을 고쳐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검열하고 있는가. 아니, 검열당하고 있는가. 성매매 여성들을 직접 만나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고려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기자들은 날마다 전화해 입장을 요구했다. 우리의 입장이 곡해되어 보도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많다. 며칠을 고민하고 쓴 글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도, 세상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충분히 공감하며 고민의 곁을 함께 읽고자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생긴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리기로 결심한다.

딜레마 없는 고민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가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다.

여성들은 절박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영등포구의원 및 경찰의 단호한 결정과 집행으로 실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일부 거리에서 성구매자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벌이가 차단된 곳에서 항의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 집회 참가자의 대다수는 영등포를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성노동자의 일할 권리’로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터 확보와 생존권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선언하여 성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법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 성매매방지법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집결지 단속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종사자 여성뿐 아니라 업주들의 연합체도 포함되어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가열차고도 일사분란한 단합성을 보여준다.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 쉬지도 않고 집회에 나와 말과 행동으로 직접 부딪혀 가며 싸우는 여성들을 보며 무엇이 그들을 이리도 절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성매매방지법>을 그 근거로 하는데, 성매매 방지법 제 1조에서 다루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단속 및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성매매알선 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과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이다. 방지법 이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고,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선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탈성매매를 원하거나 피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제도가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간

단해 보이지만 두 법은 여성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성상품화, 기형적인 산업구조 안에서의 차별과 인권유린과 같은 부조리한 대우, 경제적·신체적 피해, 수많은 죽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성매매방지법>이다. 하지만 요즘의 영등포를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은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불법’과 ‘단속’으로만 접근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라졌다. 영등포성매매집결지의 갈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은 모두 뒤로 빠져 있다. 경찰의 단속 강화 의도와 이를 지지하는 영등포구 국회의원의 입장,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업주와 알선 업자들, 성구매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들은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직접행동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욕구와 요구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피해자화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과 다른 문제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것대로 따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싸움의 대상이 모두 숨고 섞여서 그럴 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지금 영등포 집결지에 대한 집중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치권과 경찰은 누구의 개발 사업을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이용’하여 철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일까.

영등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는 영등포 초등학교와 영원 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이들 보기 무섭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말했다.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고 나서는 시민들의 유입이 많아져 민원이 더 늘었다”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확실하게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영등포에서 불붙은 '성매매 전쟁'>, 2011. 4. 23). 지역 국회의원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벌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경찰에 힘을 보탰다(한국일보, <“생존권 보장”다시 거리로 나온 성매매 여성들>, 2011. 5. 18). 게다가 영등포 역 주변은 지난해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이다. 전여옥 의원은 “이번에 확실하게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고 ‘재정비’를 ‘재개발’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라며 “서울시 측과 협상 중에 있으며 4월내에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영등포에서 불붙은 '성매매 전쟁'>, 2011. 4. 23). 이러한 태도를 보면 이들이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단속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데에 성매매여성의 피해나 여성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해결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영등포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원과 성매매 여성을 불합리한 존재로 보는 민원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고, 성매매가 누구에게 피해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등포를 비롯해 개발 계획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집결지에 대한 단속은 성매매방지법을 ‘이용’해 철거를 손쉽게 하려는 움직임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 수밖에 없다.

경찰과 정치권은 각종 형태의 성매매와 그 구조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구축해야 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이 성적인 대상으로서만 환원되어 수많은 성산업 시장 속에 위치 지워진 채 기능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이 보여줄 것은 대립이 아니라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본질이다.

언론이 시끄럽다. 성매매 이슈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도 오랜만이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와 그에 대응하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시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영등포 성매매집결지가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마치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양, 이 곳 밖의 사람들은 신기한 볼거리가 난 듯이 일종의 가십처럼 이야기한다. 언론이 영등포의 상황을 보도하는 방식이나 상담소로 인터뷰 요청할 때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매스컴은 우선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로 득달같이 전화를 한다. 상담소로부터 집결지에서 외치는 요구조건들에 반대하는 의견을 받아내어 성매매 이슈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태도는 성매매 관련한 어떤 사건이든지 성매매를 ‘찬성하는가 vs 반대하는가’의 문제로 다수의 관심을 쏠리게 만든다. 성매매 집결지 단속과 여성들의 시위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하지만 주변의 갈등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 vs 행동은 나쁘지만 성매매 여성도 사람”의 대립인데, 성매매 여성의 행동을 가지고 성도덕적 판단을 하는 범주의 논쟁 양상이다. 또 하나는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다 vs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소위 진보적인 가치관들이 대립하는 양상인데, 여성 혹은 성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각종 언론에 의해 해결방안이 극과 극인 여러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들은 일순간에

삭제된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여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여성의 인권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의식전환과 같은 주제들은 섬세하고도 진득하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쉽게 끝나지 않을 이야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집결지 단속을 반대하는 행동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스스로 목소리 내지 않던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누구보다 당사자가 개입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임은 그간의 실제적인 여러 정책의 변화를 통해 보아왔다. 영등포와 관련해서도 ‘단속을 한다-안한다’, ‘법안을 폐지한다-안한다’의 주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안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 공감에서 고민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